

전남도, '농산어촌 정주여건 개선 사업' 탄력

해수부 공모 완도·신안·고흥 선정
행복한 삶터·시군 역량강화 사업
완도, 어촌 빈집재생 사업도 추진
가치상승·지역소멸 대응 등 기대

전남도가 추진중인 농산어촌 정주여건 개선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의 '2025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 사

업' 공모에 완도군·신안군·고흥군이 선정됐다. 또 '어촌 빈집재생 공모사업'에 완도군이 선정돼 낙후한 어촌 정주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어촌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어촌주민의 소득을 창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생활기반을 활용한 수익시설 조성 사업이다.

전남도는 행복한 삶터 조성, 시군 역량

강화사업, 2개 유형에 공모사업을 신청, 해수부의 서류 및 현장평가 결과 3개소가 선정돼 국비 149억원을 확보했다.

행복한 삶터 조성에는 완도군·신안군이, 시군 역량강화사업에는 고흥군이 선정됐다.

전남도는 현재 16개 지역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모사업에 많은 시군이 선정되도록 시군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공모사업 대응 전문가 초청 강의, 공모대응 계획 수립, 시군

연찬회 개최로 사전컨설팅 제공 등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해수부가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어촌 빈집 재생사업은 어촌지역의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빈집 및 유휴공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 어촌·어항재생사업 구역에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활용,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완도군이 선정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2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농산어촌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어촌지역 가치 상승 유도 및 어촌의 지역 소멸 대응 등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김현미 전남도 해양수산과장은 "어촌공간의 생활기반 확충, 어촌 삶의 질 향상,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지속적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낙후한 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내년 7월 담양서 '전국 생물다양성 대회' 열린다

창평·대덕면 일대서 개최
친환경농업 가치 등 공유

전국 소비자와 생산자, 농업인이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공유하는 2025년 제5회 생물다양성 대회 개최지가 담양으로 확정됐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전국 시군 친환경농업협회를 대상으로 제5회 생물다양성 대회 개최지 공모를 진행한 결과 담양군친환경농업협회가 단독 신청해 개최지로 확정됐다.

생물다양성 대회는 생물종을 보존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는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소비자와 공유하고, 소비자·생산자단체·지역농업인의 교류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다. 제1회 대회는 지난 2021년 충남 홍성에서 진행됐으며, 올해 제4회 생물다양성 대회는 오는 9월28일 제주도에서 열린다.

(사)전남친환경농업협회가 주관하는 제5회 생물다양성대회는 생물다양성의 보물 '유기농 생태마을'을 주제로 내년 7월19일 담양 창평면과 대덕면 일대에서 개최된다. 대회는 기념식과 생물다양성 체험대회, 홍보 및 체험 부스, 포럼 등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은 전남의 특징인 유기농 생태마을로 최초 지정된 대덕면 시목마을(2009)과 수북면 황덕마을(2010), 농촌체험휴양마을이기도 한 창평면 유촌마을(2022), 총 3개의 생태마을과 생태공원, 4년째 운영되는 생태교육 논의 있다. 또한 호남의 젓줄인 영산강 시원지로서 생태환경이 잘 보존된 곳이다.

담양군친환경농업협회 측은 "전남친환경농업협회와 담양군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뤄낸 성과"라며 "제5회 생물다양성 대회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유치 소감을 밝혔다.

오지현 기자



가상현실로 안전교육 받는 이룬차 배달종사자
광주지역 이룬차 배달종사자들이 27일 광주교통문화연수원에서 열린 '찾아가는 라이더 안전교육'에서 가상현실 VR을 활용해 이룬차 사고 예방, 안전배달 노하우 등 교육을 받고 있다. 이번 교육은 안전보건공단과 배달의민족 물류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이 주최했다.

나건호 기자

광주농업기술센터, 내년 농업교육 수요조사

광주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10월18일까지 '2025년도 농업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내년도 농업 교육과정 개설에 앞서 현장 교육 수요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수요조사는 온라인과 현장 방문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조사는 광주농업기술센터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광주농업기술센터 누리집(https://www.gwangju.go.kr/agri/) 팝업창 정보문자(QR코드)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인터넷 활용이 어려

운 고령 농업인들에 대한 수요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상담소 직원이 방문해 조사한다.

광주농업기술센터는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농업인대학', 신규농업인 교육을 비롯해 양봉·논콩 등 '단기 품목교육', '농업인강사 양성교육', '청년 영농현장 멘토링' 등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품목기술교육 등 2025년도 농업 교육과정 개설에 반영한다.

노병하 기자

광주시, '2024년 우수중소기업인상' 공모

광주시는 오는 9월2일부터 20일까지 중소기업인의 자긍심과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4년 광주시 우수중소기업인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 대상은 공고일(27일) 기준 3년 이상 광주시에 본사와 공장(주사무소)을 두고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대표자이다.

올해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5명 이내로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는 기업의 재정 건실도와 경영 평가, 고용 창출, 기술 개발 등 정량평가를 비롯해 근로자 복지 증진, 지역사회 공헌도 등 정성평가로 진행된다. 또 평가항목에 ESG경영 준비를 신설해 ESG 진단 또

는 ESG 컨설팅을 받은 실적, 광주시 탄소중립 시책 참여를 포함한다.

광주시 우수중소기업인에 선정되면 지정 후 2년간 경영안정자금 지원 한도 확대(3억→5억원), 이자차액 추가보전(2%→3%), 구조조도화자금과 수출진흥자금 융자액의 10% 이내 추가 지원, 신용보증료 할인(1.2%→1.0%),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9월2일부터 20일까지 광주시 창업진흥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https://www.gwangju.go.kr) 시정소식,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광주시 창업진흥과로 문의하면 된다.

노병하 기자

광주경자청, 'KEET 2024' 공동홍보관 운영

트로닉스 등 입주기업 4곳 참가
신기술 홍보·판로 개척 등 지원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주경자청)은 28일부터 30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기후환경 에너지대전(KEET 2024)'에 참가하는 광주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들과 함께 '광주 공동홍보관'을 운영한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경자청은 입주기업 실태조사와 입주기업협의회 등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공동홍보관을 운영, 입주기업 홍보와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광주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중 에너지·환경 분야 유망기업이 참가해 시제품과 신기술을 소개한다. 또 공동홍보관을 찾는 바이어와 관련 기업과의 기술 제휴·비즈니스 협력 등의 상담도 진행한다.

전남도, '권역별 찾아가는 예산학교' 호응

전남도는 도·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및 담당 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 차례에 걸쳐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의 예산학교는 도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도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특히 광주경자청 투자유치 프로젝트 매니저(PM)가 홍보관에 상주해 광주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상담을 병행한다. 전시회 참여기업은 빛그린산단과 에너지밸리에 입주한 △트로닉스 △삼도환경 △이삭에너지 △리치룩스 등 총 4개사이다.

'트로닉스'는 빠르게 발전하는 IT기술을 활용해 사람과 사물을 연결하는 사물인터넷(IoT)과 에너지관리(EMS) 기술을 연구하는 전문기업으로, 사람과 환경정보를 실시간 수집해 예방적 재난 대응 시스템을 제공하는 e-IoT 스마트 공공조명 통합 관제 시스템을 소개한다.

e-IoT란 에너지 전력분야의 사물인터넷(IoT)기술로, 전력 에너지 시설에 부착되는 디바이스간의 정보 수집 및 관리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주는 전력에너지 플랫폼을 말한다.

'삼도환경'은 '농축산용 플라즈마 발생

장치', '플라즈마 약취제거기' 등 플라즈마 기술제품을 생산하는 전문기업으로, 전시회에서는 축사·퇴비장 등 대량악취물질이 발생하는 장소와 공간의 각종 악취물질 제거 및 살균이 가능한 '플라즈마 탈취기'를 선보인다.

'이삭에너지'는 태양열 및 태양광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유망기업으로, 태양열을 효과적으로 흡수해 전기나 가스 없이도 물을 가열해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태양열 온수 보조시스템을 전시하고 시연도 진행할 예정이다.

'리치룩스'는 스마트 조명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에너지 절감형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등 기구 및 각종 센서와 연동되는 감성 조명을 설계·제작하는 제조기업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식물 성장을 촉진시키는 LED 투광등 시제품을 전시한다.

노병하 기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올해부터 관련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시군에서 운영 중인 주민대표 기구와 연계해 주민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참여를 강화하는 '시군과 함께하는 예산학교'로 추진했다.

순천과 나주, 무안에서 권역별로 진행된 예산학교에서는 2025년 전남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이 소개됐다. 이어

행안부 주민참여 예산제도 컨설턴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김민철 함께해봄협동조합 연구원과 최승우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이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와 '주민 제안사업 검토 및 활용방안 이해'를 주제로 강연했다.

예산학교 참석자들은 강연을 듣고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실질적 이해도를 높이고 예산참여 과정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였다는 반응을 보였다.

오지현 기자